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행복한 가을 선물

나의 가을 주머니에는 친숙한 단어가 가득하다. '허수아비', '노오란 들관', '밭', '대추', '감', '코스모스 길', '시골', '호두', '미자, 숙자, 정자, 미숙이, 순남이, 연미', '개풍이', '소풍이', '마을 어귀', '친구들', '휘어지는 부모님의 허리', '떠날 때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류장' 등이다. 딱히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하면 '행복한 선물'이다.



박여범

용복중 국어교사·문학박사 문학평론가·수필가

아버지를 찾아 떠난 고향길, 우연히 밭길에 머문 곳은 추억 만땅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교정이다. 건물은 그대로다. 교실을 찾았다.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의외의 풍경이었다. 그 시절, 우리가 매일매일 반대한듯하게 초로 광을 내며 청소했던 나무 교실 바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당황스럽게도 그곳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풀쭈쭈 '돼지'다. 대박이다.

어느 시골 청년이 폐교된 나의 교실을 임대로 분양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나마 운동장도 관사도 자두나무, 은행나무도 그대로 남아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그럼에도, 가을이면 노랗게 물들던 은행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축 늘어지고 있다. 사람 그림자를 보기 힘든 시골에서 은행나무 관리는 무리한 희

망고문이다. 함께한 가족과 덕하니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시적(詩作)' 노트와 '연필'을 꺼냈다.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나는 것을 시로 백지를 끄적끄적 채워갔다. 선산한 가을바람과 추억의 운동장은 영화에서나 연출될 수 있는 한 장면이다. 축구 골대 뒤, 오솔길을 따라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흩날린다. 가을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내 눈 앞에 그림처럼 다가오고 있다.

늘고 맑은 가을 하늘 바라보다가 눈이 부셔 부끄러워 고개 숙인 노오란 벼의 가을본 외침에 재질거리는 침새의 아무진 합창이 서늘한 바람 되어 칠각, 칠각, 눈에 담기, 하나 둘을 추억이 쌓인다

따갑고 눈부신 가을 햇살 보내기

싫어 반딧불이 같은 태양 민낯이 낮설어 그리운 마음 풍성한 밤송이로 가득 채워버리고 칠각, 눈에 담기, 추억 메모리에 저장한다

송글송글 부끄러워 불디불게 물들어 서러운 한 그루 새초롬한 대추나무는 사랑이 주렁주렁 실가운 미소에 소소한 일상은 달척지근 무너지고 칠각, 눈에 담기, 밤상이 화려하다

칠각, 칠각, 칠각, 비보같은 가을을 눈에 담으면 놀다란 하늘 넓은 들판 만큼, 배터리 부족해 배부른 생각들은 하늘에 일곱색깔 무지개 감질나고 가을엔 언제나 부족하다 늘 그럴

듯이(박여범 시: 가을은 언제나 부족하다)

가을을 '찰각', '찰각' 가을을 눈에 담다 보면, 배터리가 언제나 부족하다. 부족한 가을은 정말 짧다. 4계절 중 봄과 가을이 유난히 짧게 느껴진다.

봄이 익어가는 사과와 대추, 통통통 튼실한 밤을 바라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을이 너무 짧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배부른 생각이 맑은 가을 하늘에 일곱 색깔 무지개로 손짓한다. 노오란 벼와 산들산들 함께하는 코스모스를 눈에 담으며, 한적한 시골길을 맡없이 걸어본다. 주어진 시간을 조개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공동체와 가까운 시골길로 달려가자. 거기에 서 만난 수많은 자연과 사람들이 새로운 추억으로 남아 '언제나 부족한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어린 시절 추억으로 가득한 '나의 가을 주머니'에 오늘은 무엇을 가득 채워야 할지, 고민할 이유가 없다. 눈앞에 펼쳐진 경이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기'만 하면 된다. 계절은 저마다 특성을 가진다. 가을도 그 하나다. '짧지만 길게 즐길' 줄 아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사설

도내 중소기업들에 관심과 지원

도지사가 중소기업들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도지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들고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엇그제 안주 산업단지에서 정석케미칼에서 가진 모임도 그렇다. '전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공감'을 위한 소통의 현장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전북도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관심을 꾸준히 보여야겠다.

도민들은 중소기업과 관련해 전북도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들도 그렇지만 그보다 작은 소규모 기업들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전북 경제가 흔들림이 없을 터이다.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전북도는 우선 도내 기업들의 생존율이 어떤지 파악해야 했다. 지난 십수 년 간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계속됐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일해야겠다. 지역의 급한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당부는 저번에도 했던 바이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영세기업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특히 일본의 무역 도발로 시작된 갈등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 전북도는 그런 기업들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중소 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특별히 강조해 당부를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주변의 여건 흐름이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니와 돈이 돌지 않는 전북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전북도가 경제 살리기를 최고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어서 거듭 강조해 당부한다. 전북도는 계속 기업 생존률을 끌어올려야 했다. 도내 중소기업들과 영세 기업들이 그동안 애써 일한 것을 잊지 말아 달라는 호소이다. 전북도는 이 어려운 때 능동적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에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전기차 생산 위해 작업 속도 내야

전기차 생산을 위해 작업 속도를 내야겠다. 먼 미래의 일이라며 만만치 않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군산형 일자리가 어찌 되고 있냐고 여러 번 물었거니와 지금은 군산형 일자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마무리가 되면 군산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논의될 거라고 여당 대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관계자들이 채근하지 않고 있는 탓일 터이다. 실직자들을 포함해 군산시민들은 하루 하루가 너무 힘들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야겠다. 군산이 전기차 생산기지로 도약하리라는 보도가 나온지 오래된 지금이다. 저번에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 지역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를 내겠다고 모델 투자 계획이며 추진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군산시청에서 가졌는데 그때도 발빠른 행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문성현 씨 등 인사들이 참석해 방향을 논의하고 격려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

다고 믿는 군산 시민은 별로 없었을 터이다.

지난날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기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었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지원은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추진 행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한국GM공장을 인수한 주식회사 명신이 2550억원을 투입해 643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겠노라는 투자협약식 때가 생각나는 것이다. 협약 당사자인 전북도와 군산시의 고위 관계자들은 협약식의 자리에서 웃는 낯으로 주목을 불끈 쥐고 사진을 찍은 만큼 앞으로도 강단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에 보도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2021년부터 5년내의 전기차를 생산케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직 수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신경을 쓰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다시 당부하거니와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겠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속도감 있는 작업 행보를 보여야겠다.

독자재언

가을 행락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1위는?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단풍구경을 나서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가을 행락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1위는 무엇일까.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20% 이상이 졸음운전으로, 사고 원인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졸음운전 사고 발생시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7.5배나 된다. 그렇다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환기를 자주시키자.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축적되어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두 번째,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가능한 동승자가 있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커피나 커피 등 적당한 간식을 차에 두고 먹으면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노선에 235개의 졸음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오는 졸음을 무작정 이겨내려고만 하지 말고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을 이용하여 20분 이상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가오는 행락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 바란다.

백요섭 교정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일 무역 협정서 서명한 두 정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 회담 후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서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